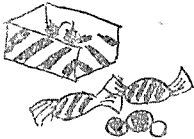


장기 복용하면 중독작용(中毒作用)이

해열진통제



朴 忠 緒

열나고 아픈병의 종류는 부지기수로 많다. 열나는 병만도 무수하고 통증이 있는병도 무수하다. 열이 나면 대개는 몸이 쭈시고 아프게 마련이지만 때로는 열만나고 통증이없으며 또 때로는 반대로 통증만 있고 발열이 없는수도 있다. 여하튼 어느경우나 그 원인질환의 수는 많다.

어떤 질환때나 환자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약국을 찾아가서 약을 사먹는 것보다 의사를 찾아가서 병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열나고 아픈원인이 간단한 감기몸살징도라면 아스피린 몇알로 낫을수도 있으나, 현두선염이나 심지어 뇌

막염인 경우에도 약국에가서 아스피린을 사먹어서 나을리가 없고 안났는다고 서투른 항생제를 이것저것 함부로 쓰다가보면 병은 병대로 악화하고 해열진통제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다.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생기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열·진통제는 어디까지나 열과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대증치료제(對症治療劑)이지 결코 병을 뿌리뽑는 조치 약이 될수는 없는것이다.

열나고 아픈것이 낫지 않는다고 원인질환은 알아보려 하지않고 어리석게도 진통 해열제만 장기복용하다 보면 각종의 중독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즉 아스피린등 살리실레이트(Salicylate)계통은 이명, 두통, 혈운, 혼미 등 소위 『살리시리즘(Salicylism)』이란 증상이 생기고 심하면 과흡수(過吸收), 위장장애, 산(酸) 염기(鹽基) 반절출혈 등이 나타난다. 또 피부발진이나 천식등 알레르기 반응도 나타날 수 있다.

『아미노피린』도 발진·오한·현운 혈액순환장애 등 증상이 있고 때로는 무과립세포증(無顆粒細胞症)이 생긴다. 또 월경중에는 금기로 되어있다. 『페나세친』 때는 『피아노오제(靑色症)』 호흡곤란, 현운, 쇠약, 협심증순환장애, 체온저하, 허탈등 증상이

생기므로 장기사용은 금물이다.

『부타조리딘(Butajolidin)』은 체액을 저류시켜서 부종, 뇌압상승등이 오고, 두통, 현운, 심기항진, 위궤양, 출혈, 황달, 발진, 교감신경장애 등이 생기고 경련, 기타 심장, 간, 신장, 위장질환이나 특이체질에는 금기로 되어있다.

『키닌(Quinine)』에도 오심, 구토, 설사, 전신이완, 발열, 이명, 현운, 시력장애등이 오고, 임신 시신경염, 알레르기에는 금기로 되어있다.

Ciuchophen은 주로 뇌산 배설을 촉진한다. 간 신장질환, 임신, 술중독 등에는 금기로 되어있다.

Carisoprodol은 수기, 쇠약, 발진 등 부작용이 있다.

기타 수많은 진통·해열제가 나와 있으나 주되는 약에 부작용방지제, 진정제 향료, 소화제 기타 여러가지를 섞어서 만든 약들이다.

진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마약계통으로는 『몰핀』을 위시하여, 『코데인』 『디맥롤』 『다리콘』 『탈원』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아편의 부작용이나 중독증상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므로 생략한다.

〈필자=현양의대 신경내과 교수〉

발열 부작용에 특히 주의를

수액제제



元 鍾 德

오늘날 수액제제(輸液製)는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으므로 환자를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수액을 선택하는 것은 유능한 전문 의사도 세밀한 검사 성적이 나오기전에는 어려운 때가 허다하다.

수액을 주사하였을때에 일어나는 부작용중, 과거에는 발열이 가장 큰 문제였으나 수액셋트의 불완전 소독 등으로 일어나는 발열부작용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수액의 투여량이나 속도관계로 심부전(心不全)이나 폐수종(肺水腫)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또 K, Ca 또는 각종 전해질수액은 각기 다른 기전